

‘좋은 책’에 대한 어른과 어린이의 생각

책은 이상한 것이다. 고르기에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일 수도 있다. 또 연령에 따라 좋음과 나쁨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 책이다. 이런 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책이라는 ‘상품’은 그 양자를 간직하고 있는 모순적인 성격의 그 무엇일 것이다.

5월 5일자 본지(128호) 이 난에 실린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책의 경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른들이 좋다고 권하는 책, 보다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나기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권하지만 어린이들은 그것이 좋은 책인지 제대로 모른다. 이러

한 현상을 어린이들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 어른들의 관심이 너무 성급하다.

최근에 계몽사에서 발표한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기 좋다고 느끼는 아동도서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작지만 그 의미상으로 결코 작지 않게 느껴지는 문제점이다. 특히 대부분의 어린이도서 구입이 부모의 권유—실은 전부 다일지도 모르는 일이지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자기 좋은 책을 꼽는 견해차가 크다는 것은 부모에게나 어린이에게 모두 불행한 일로 비쳐진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알아준다. 자

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는 것이 우리네 부모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자식이 더 뛰어난 것도 없고 더 못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네 부모들은 망각하고 있다. 더 뛰어난 자신의 자식을 위해 선택한 아동도서의 기준이 대부분 부모의 입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곧 어린이의 눈이 어른 눈으로 재단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여기에 이르러서 어른들은 행복해지고 어린이들은 불행해진다.

어린이들도 읽고싶은 책이 있다. 그것들은 어른들의 잣대로 판가름할 것이 아니다. 연령에 따라 어린이들의 독서 경향이 틀려지며 어른들은 그 경향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에게 양서를 선택해주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최근 출판계가 불황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독서에 어른이 간섭하는 그릇된 독서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일부의 지적은 여기서 일정부분 타당성을 갖는다.

—이성수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르네상스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서구의 지성적 사상적 토대를 일군 일련의 대표적 인물들과 사건들을 ‘책’을 통해 소개한 「西洋의 知的 傳統」(브로노프스키/매즐리쉬 지음, 차하순 옮김, 學研社)은, 특정분야가 아닌 정신활동의 전분야에 주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의 사상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특색을 지닌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서 헤겔에 이르는 인물들의 저서를 통해 「역사를 달리 보는 법」의 체험을 담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들은, “우리 두 사람은 역사의 연구를 일종의 해방으로 체험하였다. 또한 그것은 기성사상을 뿌려한 초점에 맞추어 보게 하는 사상적 진화를 조망하는 시야를 부여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몽테스키외의 풍자문학작품 「페르샤인의 편지」에 관한 부분을 인용, 소개한다.

공상적인 여행기는 18세기에 즐겨 쓰는 풍자형식이 되었다. 이 분야에서는 볼테르의 선배인 몽테스키외를 맨처음의 예로 다루기로 하자. 우리는 몽테스키외의 정치적 역사적 사상을 다음 장에서 다룰 예정이며 여기서는 그의 풍자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는 풍자적인 여행담의 장르에 있어서 최초로 진정한 성공적인 작품을 썼다. 사실상 몽테스키외가 극히 젊어서 큰 명

성을 얻은 것은 1721년 익명으로 「페르샤인의 편지」란 책을 프랑스 국외에서 출판하였을 때의 일이었다. 이 책은 이윽고 많은 모방자를 낳게 되었다. 예를들면 골드스미스는 약간 뒤에 영국에서 돈과 명성을 얻었는데 분명히 몽테스키외의 책을 모델로 삼은 책을 어떤 중국 방문객이 쓰는 형식을 취해 출판하였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의 방법은 간단하다. 그의 여행담은 프랑스를 방문한 리카와 우즈베크라는 두사람의 페르샤인에 의해 씌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고국에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서 프랑스인들에게는 극히 당연하게 생각되는 모든 관습을 이상한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시 사회생활의 인습적인 면—즉 의상관습이나 행동방식 또는 살롱생활의 형식적인 점 등—을 진지한 얼굴을 한 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중략)

「페르샤인의 편지」가 대단한 인기를 누린 것은 특히 몽테스키외가 그의 풍자적이며 해학적인 재능에 덧붙여 독자의 호색적인 흥미에 서슴지 않고 호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페르샤의 하층에 있어서의 생활이나 가습을 다루고 있는 약간 추잡한 문장들이 있다. 몽테스키외가 능란한 문체를 구사한 결과 그

의 작품은 프랑스의 살롱사회의 예의바르고 세련된,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적합한 것이 되었다.

「페르샤인의 편지」가 프랑스에서 출판된 거의 같은 때에 영국에서도 많은 탁월한 풍자작품이 출판되었다. 예를들면 스위프트는 1726년 「걸리버 여행기」(이것 역시 가상적인 여행기임)를 출판하고 그 후 곧이어서 포프의 「愚人列傳」이나 게이의 「거지 오페라」가 나왔다. 이 시기에 볼테르가 영국을 방문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볼테르는 게이를 만났고 무대에 올리기 전에 「거지 오페라」를 보았고 우리는 그가 포프나 스위프트와 교제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는 친구인 티에리에게 「걸리버 여행기」의 프랑스어 번역을 권고하기까지 하였다.

볼테르는 의도에 있어서는 혁명론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념에 있어서는 확실히 혁명적이었다. 영국 경험론과 프랑스적인 회의방법을 그가 결합시킨 것은 폭발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17세기 혁명을 형성하고 또 그 혁명에 의해 형성된 바로 그같은 사상은(물론 기타 요인과 합쳐져서) 볼테르에 의해 프랑스 땅에 운반되어 왔을 때 혁명으로 새로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 실로 볼테르는

자기 자신의 정원을 개간하긴 했으나 예기치 않은 결실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32세에 「페르샤인의 편지」를 출판하였다. 그것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1721년 중에 8판을 거듭하였다. 그 성공의 한 이유는 몽테스키외가 출판시기를 정확히 잘 맞추었다는 데 있었다. 루이 14세 사후에 집권한 섭정재제는 태양왕의 절대주의적 지배와 종교적 위선에 대해 반동적으로 나왔고 앙상 레짐의 취약점을 조소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더욱이 장 아르맹은 그때에 그의 「페르샤인의 항해」를 출판하였고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동방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페르샤인의 편지」는 그 기지에 찬 불손함과 이국적 정취를 갖고 권태가 최대 약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한 사회에 호소하게 마련이었다. 몽테스키외가 쓴 것은 대단히 읽기 쉬웠다. 짧고 격언투의(흔히 문장 하나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행문을 사용하였고, 또 분명하고 간결한 말투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었다. 불행히도 그러한 문체에는 위험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과장된 일반론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었고 이 경구적인 문체를 좀더 진지한 내용으로 쓴 몽테스키외의 후기작품에서는 이런 결함이 점차 더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

출판저널

통권 제129호 / 1993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羲天 崔炳天
金牧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아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廈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瑋璠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腹	李重漢
李姬載	林德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雲鍾	鄭雲暎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저로용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 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인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은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